

# 내가 아는 故 李輝昭박사

姜 慶 植

(미국 브라운대학교 교수)

며칠전 조간신문에서 고(故) 이휘소박사(미국명 벤자민 W.리)의 죽음을 한국의 핵개발사업과 결부시킨 추상소설을 어떤 중진 감독이 영화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고 생시에 비교적 친분이 가까웠던 동료 이론물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이상 그분의 죽음이 엉뚱하게 이용되어 잘못된 상상과 억측을 꾸며내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느껴서 이 글을 쓰기로 했다.

## 나와 이휘소박사

우리들 가까운 소립자물리학자 사이에선 이휘소박사를 그저 「벤리」라고 불렀으며 1964년 9월 내가 브라운대학교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한 후부터는 가끔 전화로 물리학적 소식을 전하고 서로 방문하면서 지내는 사이였으며 「벤」이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기 직전 5월 말경에도 그의 초청으로 국립페르미가속기실험소(보통 페르미랩이라 부름)를 방문한 바 있었다. 우리는 만나면 주로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외에도 한인과학자들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우리 둘다 70년대 초반에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함께 발기한 69명 창립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77년 5월 페르미랩을 방문했을 때 나

는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마침 그 다음해 여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고에너지물리학회에 참가하는 물리학자들중의 일부를 서울로 초청하여 미국 국무성 AID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었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과정 육성프로그램을 돕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소립자물리학 하계학교를 조직하는 것을 상의했었다.

이 계획은 원래 벤을 위시하여 김정욱, 이원용 두교수와 내가 국외에서 조직하고 국내에선 서울대 김제완교수가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뜻밖의 교통사고로 벤을 잃은 우리들은 그후 「벤자민 리 추모심포지엄」으로 계획을 바꾸어 78년8월 서울대에서 최초로 국제소립자물리학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이 추모심포지엄에 젊은 한국과학자들이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과거처에 해외학자 일시 유치계획에 의하여 벤의 제자였던 강주상박사(현 고려대교수)와 브라운대학교내 그룹의 연구원이었던 김진희박사(현 서울대교수) 등을 초청하도록 제안하여 참가케했던 기억이 새롭다.

내가 벤과 김정욱교수와 함께 한국의 물리학자를 위하여 한 일종의 또 한가지는 공교롭게도 벤이 죽은 해로부터 10년

전 같은 달 1967년 6월 어느 토요일 새벽 갑자기 요절한 고(故) 진영선박사의 추모논문집을 발간하는 일이었다. 진박사는 서울대물리학과 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고등연구소의 연구원을 거쳐 65년 내가 봉직하고 있는 브라운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조교수로 채용돼 와서 미국 물리학회지인 「Physical Review」에 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아마도 한국인 공저 논문으로 처음일 것이라고 서로 자랑했던) 소립자이론물리학자였다. 그러던 중 6월 어느 주말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실제로 동맥파열)로 세상을 떠났고 공교롭게도 그의 나이가 벤이 세상을 떠난 때의 나이와 비슷한 때였다. 몇명 안되는 한국과학자중 촉망되는 진박사의 별세를 당하여 나보다 먼저 진박사의 추모논문집을 내자고 한 사람이 벤이었다. 국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때이기도 했지만 한국물리학회에서 진박사의 추모논문집 「새물리 증보판」을 발간하는데 대한 물의도 없지 않았던 관계로 벤과 상의하여 그 출판경비를 미국내의 우리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일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나는 벤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친분관계 때문에 그후 벤의 물리학 업적에 대한 해설을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편집진으로부터 부탁받아 과기협회보에 추모를 겸한 업적소



◇70년대초 부인 매리안여사와 두남매가 함께 찍은故이휘소박사의 단란한 가족모습

개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글이 12년 후인 80년에 어느 작가가 고증도 없이 쓴 「핵물리학자 이휘소」라는 허위과장픽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될 줄을 어찌 상상이나 했던가? 그로부터 꼬리를 물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예민한 국내의 사회분위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픽션으로 새로운 작가에 의하여 다시 벤리가 핵비밀 첩보에 관한 국제간의 희생자처럼 쓰여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증견 영화감독에 의하여 영화화되리라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사건을 고증없이 일반에게 상상하게 만들어주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된다.

벤의 죽음을 당일 오후 3시반경 「당신이 벤의 가장 가까웠던 한국 친구 중의 한사람이며 동료이기에 우선 누구보다도 먼저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전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울먹이던 페르미랩 이론부 비서의 목소리를 되새겨보면서 더이상 묵과하지 말고 사실을 아는 대로 기록해줌으로써 이런 픽션으로 인

하여 향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인상을 고쳐주어야 할 의무 또한 통감하고 있다.

### 이휘소박사는 핵물리학자가 아님

벤의 전공은 나와 마찬가지로 「고에너지 소립자이론물리학」이었다. 이 점은 벤의 제자였던 강주상박사에 의하여 수차 강조되는 바이며 물리학자들은 입자물리학과 핵물리학의 구별과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픽션을 쓴 작가들은 내가 쓴 벤 리의 소립자물리학에 공헌한 업적소개에 관한 글을 마구 도용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더구나 소설을 구상하는 작가라면 주인공에 대한 고증을 친구, 동료들의 증언이나 인터뷰 그리고 기록들을 통해 조사 분석했어야 마땅하다. 혹시 입자물리학에 뛰어난 천재라면 핵물리학쪽은 벌써 다 마스터 했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개인의 지금까지의 경험도 그렇고 벤 자신의 독백도 그랬듯이 「입자물리학에서 남보다 뛰어 나기 위하여는 남보다 잠을 덜 자면서

정진하는 것」이다. 65년 여름 내가 로드 아일랜드주 링컨우드 공원에서 주선했던 한국인 피크닉에 벤이 가족과 함께 참가했을 때 소립자물리학 연구 때문에 자기 남편의 잠자는 시간이 정말 짧다면 서 그 부인(매리안)이 나는 어머니고 우리 식구에게 묻던 기억이 난다.

또 한가지 핵개발 문제는 핵물리학 이론을 아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게 한심스럽다. 핵개발이란 수백명의 핵공학자, 기술자, 실험물리학자가 함께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수억불 정도의 돈을 들인 시설과 실험설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론적인 설명은 오늘날 공개되어 알려진 문헌을 보고 미국의 유명 대학에선 대학생들도 간혹 졸업 honor 논문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핵개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사람의 이론물리학자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인상을 주는 것도 작가들의 무지의 소치로만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 이휘소박사의 교통사고

벤은 6월16일 12시 전에 사무실을 떠나 가족들을 태우고 콜로라도주 애스펜시를 향해 떠났다고 비서는 말했다. 약 1시간 반 후에 아이오와주 경계로부터 약 30마일 떨어진 일리노이주 내의 고속도로 I-80상을 정규속도 55마일로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건너편 내부고속도로선을 동쪽으로 달리던 대형트럭(트레일러를 끄는)이 뒷부분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어 조정을 못하고 중앙분리지역을 넘어와 서쪽으로 달리고 있던 벤의 차운전수축을 부딪쳤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지만 또한 이런 일이 미국의 고속도로 상에서 종종 있는 것을 신문이나 TV뉴

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단순한 그러나 역을하고 재수없게 생긴 교통사고라고 처음부터 이해했다. 넓은 고속도로상에서 더군다나 넓은 중앙분리지역이 평평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넘어와서 이렇게 부딪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점 때문에 이 픽션의 작가들은 마치 냉전시대에 흔히 들던 첩보이야기같이 꾸미고 그런 동기를 제3공화국 당시 한국의 핵개발계획에 벤을 결부시킴으로써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내가 알았던 벤은 전혀 관계할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승용차의 속도와 정지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차가 앞차와의 간격을 자기차 길이의 몇배를 두어야 안전한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적어도 자기차 길이의 6배 이상이 정답이며 이것은 또한 브레이크 정비와 타이어가 완전한 자동차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트레일러를 끄는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그 트럭의 길이는 적어도 승용차 길이의 3배일 것이니 이는 고속도로 3차선 전부를 꽉 막는 정도의 길이이다. 만약 60마일 정도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터져 조정을 잃은 트럭일 경우 아무리 급정거를 하려 해도 최소한 자기 트럭 길이의 6배 거리가 필요할 것이 분명하니 고속도로 폭의 두배 정도 되는 중앙분리지역을 넘어가는 것은 눈깜짝할 사이일 것이다. 더구나 이런 트럭들의 커다란 바퀴는 웬만큼 깊이가 패인 길은 거침없이 건너가게 되어 있다.

아마도 이 경우 트럭운전수는 분명 직감적으로 오른쪽으로 트럭머리를 돌려

길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겠지만 뒤에서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승용차 2배 길이의 무거운 트레일러는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더욱 더 왼쪽으로 미끄러지며 중앙분리지역쪽으로 트럭머리 부분을 끌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여튼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고속도로 상에서 종종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한가지는 이 픽션이 내걸고 있는 모티브(동기)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이유를 내가 아는 벤에게선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벤의 전공은 핵물리학이 아니고 소립자이론물리학이며 남보다 밤잠을 덜자면서 연구에 정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년대의 재미교포 지성인이 대부분이 그랬듯이 벤도 한국의 유신체제를 찬성하지 않았고 빨리 문민 민주체제로의 환원을 열망하는 사람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미국 물리학자들이 그랬듯이 벤도 핵무기의 확산을 반대하는 과학자중의 한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내가 벤에게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추천하는 모국방문학술회의나 하계 심포지엄의 연사로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가 그러한 정치 상황에서의 한국방문은 권하지도 말아 달라고 잘라 대답하여 무안당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벤이 이들 픽션에서 전개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개발문제에 관련했다는 스토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벤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며 평소 그의 철학을 고증해보지도 않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생긴 억측과 망상으로 그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손상시켜 주고 있는 일이다. 소위 한국의 핵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픽션에서 거론된 인사들이 이회소박사를 초대한 적이 없고 또한 당시 박정희대통령도 그를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동백장 추천 경위

앞에서 말한 바 같이 진영선교수 별세 때 벤을 비롯하여 우리 몇몇 재미교포 물리학자들이 추모논문집을 한국물리학회 「새물리 증보판」으로 출판한 바 있기 때문에 벤의 애석한 죽음을 맞이하여 나는 무언가 벤을 추모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또한 해회에서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교포 물리학자들도 고국의 이름을 빛내 주었음을 후학들에게 알려 자극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당시 한국물리학회 간사장이었던 고(故) 조병하박사(당시 한국과학원교수)에게 상의했고 조병하교수의 노력으로 한국물리학회에 정부에 훈장추서를 건의했던 것이다. 진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벤의 경우에도 한국물리학회 간부사이에서 해외교포 물리학자로 한국내에서 봉사한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가 더러 있었던 것을 후에 들은 바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마치 당시 대통령이 직접 훈장추서를 지시한 것처럼 말하는 것과는 전연 거리가 먼 것이다.

훈장수여도 원래는 미망인 매리안과 두 남매를 초청하기로 조병하박사와 사이에 상의되어 이들의 한국방문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매리안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평소 자기 남편의 철학을 따르기 위하여 유신체제의 한국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초청을 받을 수 없다고 단호히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했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노모에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벤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대신 받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

에 벤의 어머니가 최형섭과기차장관의 방에서 물리학회 간부 몇분의 참석하에 동백장을 대신 받게 되었던 것이다.

### 이 픽션들이 끼칠 영향

이상에서 내가 알았던 벤은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실의 진부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짓되고 과장된 추상에 의한 픽션이 가져올 나쁜 영향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떠난 벤 리가 영뚱한 일로 기억되는 것을 유가족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며 가까웠던 동료들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훌륭한 소립자물리학자로 기억하도록 지금이라도 시정하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꾸며 자꾸 퍼뜨렸을

경우 한미관계가 불필요하게 어색해질 수도 있는 것임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진정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하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픽션이 철저한 고증없이 영화화 되었을 때의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본다. 어떤 분들은 이 픽션이 마치 JFK사건과 같은 의혹과 스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영화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엄격한 고증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소립자물리학자를 핵물리학자 또는 핵공학자로 둔갑시켜 문민 민주정부를 열망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유신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신에 어긋나는 핵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다가 미국 첩보기관의 관여로 꾸며졌을지도 모르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면영상으로 옮기기 전에 다루려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먼저 해주기 바란다.

정말 미국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끄는 긴 트럭이 중심을 잃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를 내는 게 불가능한지 또한 첩보이야기처럼 누군가 뒤에 따라오면서 무전신호로 알리고 지시해야만 가능한 것인지도 연구실험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일을 해주는 길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꺾려온 관계를 불필요하게 야기시키지 않는 결과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페르미랩 비서의 전화를 받고 시카고로 가서 웨이크와 장례식에 참가했을 때 벤에 대한 정중하고 아쉬워하던 추모사를 되새기면서 요즘 향간에 흥행 판매되고 있는 픽션에 허위과장되어 그려진 이휘소박사는 아무리 보아도 내가 알던 이휘소박사가 아니라고 소리쳐 볼 뿐이다.

## 가죽제품 관리법

올 겨울엔 가죽으로 만든 오버 코트와 장갑이 인기를 끌고 있다. 봄 여름 가을 내내 서랍 속에 보관했던 가죽제품을 꺼내보면 곰팡이같은 것이 피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는 솔같은 것으로 곰팡이를 털어낸 다음 세탁하는 것이 가죽제품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마음도 개운하다. 그런데 가죽장갑을 세탁하는 데는 보통 세탁물과 같이 아무렇게나 빨면 도리어 얼룩이 지고 줄어들 수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가죽장갑을 세탁하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가죽장갑을 우유로 빼는 것이다. 가벼운 때는 우유를 솜에 묻혀 훑쳐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도 때가 빠지지 않으면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우고 이 속에 질이 좋은 유기비누를 조금 깎아넣고 잘 푼 다음 장갑을 건채 우유 속

에 담그고 역시 솜같은 것을 이용해서 때를 살살 문질러 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에 행구고 타월에 싸서 물기를 뺀 후 말리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일

### 과학 정보

은 반드시 그늘에서 말리되 손가락을 끼우는 곳마다 잘게 자른 신문지 같은 것을 말아 채운 다음에 말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충 마른 다음엔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하고 손에 다시 낀 다음 모양을 가다듬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유로 가죽장갑을 세탁하는 일은 가죽의 부드러운 촉감을 그대로 살리고 가죽이 굳어진다든

지 줄어드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죽장갑뿐 아니라 가죽잠바와 부츠도 곰팡이가 났다든지 때가 묻어 있으면 우유로 빨아야 한다. 이들도 빼는 요령은 같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말릴 땀 반드시 그늘에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가죽제품이 비나 눈에 젖었다든지 했을 때 성급하게 햇빛이나 뜨거운 난로가에 말리면 가죽이 줄고 굳어지면서 트게 되어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 특히 따뜻하고 보온성이 강해 한겨울 젊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부츠는 신고 다니면 자연 물기가 묻고 속엔 땀이 차게 되기 마련이어서 보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부츠는 벗은 뒤에 손질을 하고 발끝쪽에 신문지같은 것으로 채워넣고 다리 부분엔 큰 콜라병을 신문지에 싸서 꼭 채워 높은 곳에 매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부츠가 줄어들거나 쭈글쭈글해지는 일이 없이 오래 두고 신을 수가 있다.